

## C-6. Block Bone Graft with osteopromotive membrane

이동영, 이만섭, 권영혁, 박준봉, 허 익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 교실

### 연구 배경

치과 임플란트는 결손치아를 수복하는 한 방법으로서 임상적 적용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제 보편적인 치과치료의 한 분야로 자리잡은 치과 임플란트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능적인 면의 개선과 함께 심미적인 면의 개선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치주질환이 심하게 진행되어 치아를 상실한 경우와 발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치조골 흡수가 심하여 임플란트의 식립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경우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치조계 증대술을 시행해야 할 경우가 많다. 치조계 결손의 형태에 따라 증대술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잔존골의 골벽수가 적을수록 osteopromotive technique을 사용한다. 동종골 이식이나, 골유도 재생술을 사용하기도 하나 골결손량이 큰 경우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므로 자가골 이식은 위축된 치조골과 골결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특히 block bone graft는 별도의 공간유지가 필요 없고, 치유가 빠르며, 수여부 골질과 상관없이 공여부 골질로 치유되기 때문에 향상된 골질을 획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치유기간이 길어지면 이식골 표면에서 흡수가 상당량 일어날 수 있고, 치유기간이 짧으면 임플란트 식립시 이식골편과 수여부가 분리될 수 있다. Block bone graft상방에 osteopromotive membrane을 사용하면 골표면의 흡수를 줄여 골의 부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고, 이식골편과 수여부의 부착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임상 증례

37세 남자 환자

치주질환(aggressive periodontitis)으로 수년 전에 상실된 #12~23부위의 심한 치조골 결손부를 하악 정중부에서 block bone graft하고, 골흡수를 막기 위해 GTAM을 사용하여 implant site development 한 후, 5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